

第22回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11月25日(水) 10時13分 開式

## 第22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定期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0時13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22回 鍾路區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서서 壇上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李斗鶴 議員 同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다는 말과 같이 저희들이 1992年度 正月初에 희망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출범한 그 날이 었그제만 같습니다. 어언간 참으로 세월의 흐름은 빠릅니다. 연말을 맞이한 이때 특히나 저희들은 1992年度 定期會 本會議를 맞이한 이 날 이 자리에는 우리 鍾路 區政을 위해 항상 모두 정성어린 수

고를 하고 계시는 區廳長님을 비롯한 여러 局長님과 關係公務員, 地域의 내빈들께서 參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議員 여러분과 더불어 본 의장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습시다마는 우리 鍾路區議會 議員들은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오로지 한 분도 사심있는 일도 없고 오로지 區政발전과 區民福祉에 기여해 왔다는데 대해서 본 議長은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議員다운 태도였다는 것을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議員님들도 아다시피 昨年度 4月 15日 개원한 이래 우리 鍾路區廳에 여러 가지 일할 것은 많습시다만 사실 1年間 豫算을 따져볼 때 저희들이 區民으로 있을 때와 議員으로 있을 때의 감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鍾路區가 1年 豫算이 그렇게도 미약했느냐 하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고 오로지 앞으로 區民을 위하고 區政 발전을 위해서 우리 豫算을 한 톨이라도 증가시켜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鍾路區廳의 金辰昱 區廳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들의 정성어린 노력을 중심으로  
國會議員 또 市議員 여러분의 강력한 協調  
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區議員 여러분들 각  
자의 정성어린 노력이 뒷받침되어 '93年度  
鍾路의 財政이 700억을 능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다같이 보람이  
라 여기고 우리 區民에게 얼굴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 다같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는 '93년을 맞이해서  
일반 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을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도 區 行政機關을 중심으로  
700억원 이상의 豫算이 될 수 있도록 자  
립도를 향상시키고 또 극력 노력해서 나름  
대로 누구가 區廳長이 되시더라도 또 局長  
이 되더라도 關係公務員이 되더라도 700억  
원 이상의 豫算으로 우리 區政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자부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재삼  
재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날을 기점  
으로 해서 '93年度の 豫算에 대해 실무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내  
적인 정세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내적으로  
맞이하는 第14代 大統領은 2천년을 맞이하  
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영도자  
를 모시는 選舉와 우리의 豫算 審議가 일  
치되어 중첩이 되었습니다. 중복된 이 차제  
라도 우리는 국가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거  
룩한 議員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모든 區  
民이 바라보고 있는 '93年度 豫算 審議에  
대해서 슬기로운 올바른고 진지하고 정성어  
린 審議를 해서 우리 區民에게 '93年度를  
맞이하는 희망찬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깊이 재삼 재사 마음 속으로  
아로새기면서 여러가지 사사로운 감상을 초  
월해서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  
대편 입장도 생각하고 區民의 소리도 소홀  
히 하지 않는 議員으로서의 폭넓고 창의적  
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너  
그러운 議員의 자세로써 檢討를 하고 또  
審議를 하고 생각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

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개회사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第22回 鍾路區  
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24分 閉式)